

# 매일 자기에 맞는 수행해야



절을 받았다. 스님은 이 또한 대혜 스님의 음악이라 여긴다.

중국의 선종사찰에는 여전히 선농(禪農)사상이 남아있어 스님들이 인분을 밭에 뿌리는 험한 일부터 해서 농사일을 다해내더라. 그리고 폐인트칠하고 풀담을 쌓는 등 사찰을 직접 장엄하는 것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 지묵 스님 또한 평택의 아람아선원 선원장일 때 '선농일지'를 실천하며 대중들과 더불어 농사지으면서 수행정진 했다.

일본의 선수행이 궁급하여 여쭙었더니 '일본 스님들이라 하여 전부 다 대취(帶妻)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승들은 독신생활을 한다'고 했다. 깨달음의 인가를 줄 때는 평생 독신으로 지내겠다는 사람에게만 인가증을 준다고 하니 일본의 선수행이 무너진 것은 결코 아니더라. 이처럼 만행이란 사시(劄記)로 굳어진 안목을 바르게 펴주는 그런 공부이기도 하다. 일본의 덕립선사 국제선원에는 공양주가 따로 없고 결재한 스님들이 돌아가면서 공양을 준비한다. 스님은 그것 또한 크게 배울 점이라 했다.

지묵 스님은 보림사 주지소임을 맡아서 여러 가지 일을 새롭게 도모하고 있다. 이곳에 머문 했수가 3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요일 법회를 열고 있으며, 장흥불교대학 1기생 37명을 배출했고 지금은 2기생들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다. 일요일법회와 불교대학을 열겠다고 했을 때 주

위 사람들이 도심이 아닌 이곳 시골에서는 힘들 것이라면서 다들 말했다. 지묵 스님은 어디에서건 대중들과 법의 향기를 나누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에 일요일법회를 시작했고, 법회 때마다 회보를 만드는 등 심혈을 기울여왔다. 불교대학에 출교제도 스님이 직접 만든다. 부처님 일대기를 공부할 때는 부처에 '팔상목'을 그림화하고, 선사상을 공부할 때는 10개의 부처에 '십우도'를 직접 그려서 시청각교육이 되게 한다. 지묵 스님은 지금도 다양한 그림교재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묵 스님께 삶의 지혜를 여쭙었더니,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떤 스님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산중에서 침거하고 있는 대혜 법상 스님을 만났다.

"스님, 산을 내려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대혜 법상 스님이 "수류거(隨流去!) 흐름에 따라 가시오"라고 답했다.

"산을 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길을 잃었을 때에는 골짜기의 물 흐름을 따라 가다보면 아랫마을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현상은 변화무쌍하여 폭포수 같은 순행(順行)도 있고 웅덩이 같은 역행(逆行)도 있기 마련입니다. 순행이 오면 오는 대로 역행이 오면 오는 대로 거스르지 말고 그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잘 나간다고 오만하지 말고 잘못 나가더라도 위축되지 말고 여유하게 사세요."

지묵 스님은 왕새우가 그려진 부채를 건네시면서 "새우는 남몰래 숨어서 곱질을 벗고 왕새우로 성장해요. 불자들이 하루 중 시간을 내어 좌선, 염불, 금강경 사경, 보문품 독송, 108배 절하기, 다라니 진언 등 자기에 맞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하루 중에 자신의 길을 찾아 숨어 지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 시처럼 아름답게 들린다.

글·사진=문운정(수필가·본지 객원기자)

### 지묵 스님은 ...

1948년 전남 장흥에서 출생. 1976년 조계산 송광사에서 법흥 화상을 은사로 출가. 송광사 총무, 길상사 선원장, 법련사 한주를 지냈으며, 불교방송 신행정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금은 장흥 보림사 주지이다.

저서로 <남마다 좋은 날> <비운 뒤에 무성한 조풍박 냉쿨> <산승일기> <노스님의 젊음> 등 여러 권의 수필집과 <초발심자경문 강설> <육조단경 강설> <산심명> 등의 강의본이 있다.



한국불교 승려열전

### 만해용운(萬海龍雲1879-1944)①

만해 한용운. 독립운동가, 항일열사, 민족시인, 한국 근대문학의 거장, 개혁불교 운동가, 소설가 등 그에게 따라붙는 호칭은 다양하다. 그는 독립운동가이자, <님의 침묵>의 시인으로 더 많이 각인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만해는 불교개혁가로서의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한 인물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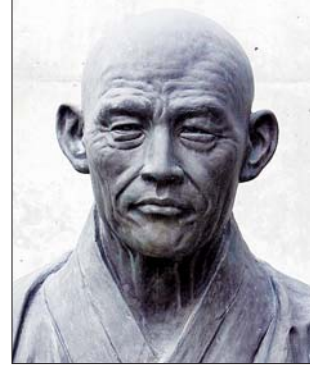
하지만 그런 다양한 호칭만큼이나 많은 다양한 이미지에 불구하고, '승려'라는 한마디만큼 그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또 있을까. "만해는 승려였다. 그것도 대승불교의 승려였다." 대승불교의 승려, 다시 말하면 대승불교의 출가보살은 서원으로 살아가다. 그 서원을 달리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요약하자면 사후서원에 다름 아니다.

만해 스님이 그러한 대승불교 출가보살의 본질을 몸매 익히고서 세상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1908년 봄 일본 임제종 대학을 시절 겸 유학하러 가던 때였다.

만해가 처음 출가를 시도하여 속리산에 입산했던 것이 1896년 18세 때의 일이고, 20세에 백담사에서 사미계를 수지했다. 1904년에는 일

르게 달라지는 아니 생전 처음 보는 근대화되기는 일본제국의 일상이었는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눈에 뜨인 것은 일본제국의 그러한 일상에, 그러한 일상의 변화에 동참하고 있는 일본의 불교였는 것이다. 각지에서 교세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 교세를 유지·보존하는 것은 물론 변화의 주축이 되기 위한 다양한 모색과 실험이 행해지는 일본불교의 위세, 그것이였는 것이다.

승려로서의 만해의 생애 전반기를 결정지었던 <조선불교유신론>은 그래서 탄생한 것이다. 만해 스님을 말하는 이들에게 <조선불교유신론>은 만해 스님의 결정판인 것처럼 운위된다. 하지만 그것은 결정판이 아니라 시작판이었을 뿐이다. 필자는 <조선불교유신론>이 그의 진면목이 아니라 출발점이라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만해 스님 동상.

첫째, 어렸든 수행자로서의 승려에게 깨달음은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단순히 승려가 아니라 출가보살로서의 삶의 출발점은 역시 깨달음이라 해야겠는데, <조선불교유신론>의 단계는 그러한 점에 많은 부분을 일각한 것으로, 둘째, <조선불교유신론>은 당면현상의 과제를 말한다. 물론

## '조선불교유신론'의 바람은 아직도 바람이여라

본행을 계획했으나 실패하고, 흥성에 귀향해 있던 중에 어려서 결혼했던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보았다. 이듬해 그는 다시 백담사로 입산하여 비구계를 수지했는데, 여러 번의 입산과 환속 끝이었으나 그 마음의 갈등이 만만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그는 백담사와 건봉사, 유점사에서 때로는 경학을 익히고 때로는 안거에 들면서 수학에 전념했다. 그 이력이 낮지 않았던지 1907년 만해 선사에 가서 전강을 받고 '용운(龍雲)'이라는 당호를 받았다.

1908년 봄의 임제종대학 시절은 이후의 만해에게 많은 영향을 남긴다. 일찍이 만해가 세계일주를 위해 시베리아행을 계획했던 것도, 1904년 일본행을 계획했던 것도 실은 모두 세상을 보기 위한 것이었다. 구한말 산중 곡곡까지 들려오는 서구열강의 이기(利權)가 어디에서 근원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었고, 그것이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휘둘러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책을 구해보고 또 구해보았다. 보아야, 알아야 가야 할 길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 탐욕에 박힌 금금증을 털어주었던 것이 바로 일본행이었다. 만해에게 일본행은 100년 들었던 것을 한 번에 볼 수 있었던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 그의 삶은 행도(行道)를 바꾸었다. 만해 스님이 일본에서 본 것은 아마도 하루가 다

당면현상의 과제가 절박하다. 하지만 그것은 내적인 측면으로부터도 해답을 얻어야 한다. <조선불교유신론>이 말하는 많은 유신의 과제들은 조선불교의 외형과 일본불교의 외형을 비교하고, 당시 동아시아 세계를 강타하던 사회진화론이라는 강자생존의 논리에 많은 부분을 일각한 것으로, 내적인 측면에서도 분명이라 말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그 안목의 거시성과 구체적인 대안의 탁월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조선불교유신론>이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생명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만해의 안목이 탁월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만해 스님이 <조선불교유신론>에 남긴 한마디가 그것을 증명한다.

"대저 거짓 유신이 있을 후에 참다운 유신이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니, 이 눈이 후일에 가서 거짓 유신의 구실을 하게 된다면, 필자의 영광이 이보다 더 힘이 없겠도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만해의 바람을 거꾸로 실현하고 있다. 덕본(?) 아직도 <조선불교유신론>은 효용 가치가 있다. 하지만 <조선불교유신론>에서 보였던 만해 스님의 바람은 아직도 바람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 석길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 대한민국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 사찰경제 바꾼다!!!

### 부처님이 봉안된 법륜대 만년등으로 활기...

상감신안목의기승  
 ■ 재료명: 순금칠발원법륜대  
 ■ 대칭: 정·대형전통 상감청자  
 ■ 높이: 110cm  
 ■ 직경: 45cm  
 ■ 무게: 800kg  
 ■ 무게: 72kg

**법륜대 예약 대축제**

신사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연중4회(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 하시는  
 혜택을 드립니다.(카드가능)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